

인물 서사 조망... 운동 이후 조용한 삶 초점

민주화운동 원로 김상윤씨 시민문화에세이집 펴내

‘50년 동안 흔들리며 배운 세상...소박한 운동사’
만남과 갈등 등 24편 수록...광주 깊은 맥락 짚어
“광주 잘 모르는 분들에 새 지도 한 장 주는 일”

광주 민주화운동의 원로이자 시민운동을 주도했던 김상윤씨가 1975년 유신독재 시대 민청학련 혐의로 수감 중이던 광주교도소에서 형집행정지로 출감한 지 50년을 맞는 해를 맞아 시민문화에세이집 ‘50년 동안 흔들리며 배운 세상- 나의 소박한 운동사’ (작가와刊)를 최근 펴냈다.

제목에서 흔들리며 배운다는데서 얼핏 도종환 시인의 시 ‘흔들리며 피는 꽃’이 떠오른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는 구절처럼 저자 또한 부조리한 시대 심연에 통째로 심하게 흔들리는 시간들을 살아내야 했으니 제목에서 흔들린다는 의미는 단순히 소소한 일상으로 촉발된 흔들림이 아니었을 터다.

엄혹한 시대 상황에서 민주화를 외치고, 투쟁을 실천하며 바라본 세상이 근원적으로 흔들릴 수 밖에 없는 근원을 꿰뚫어봤을 것이다. 이런데서 그 흔들림은 세상의 본질을 깨닫는 일이기도 했을 듯 싶다. 물론 50년 동안 흔들렸다고 한 것으로 보아 그 진동은 계속됐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회고 형식으로 기술된 이 시민문화에세이집은 생사를 넘나드는 두 번의 투옥을 불러온 민청학

련과 5·18민중항쟁 등 굵직한 사건을 전면에 내세우는 대신, 오히려 그 이후의 시간, 시민과 함께, 지역과 더불어, 조용히 이어온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광주비엔날레를 비롯한 문화사업, 사회적기업 실험, 윤상원 열사 기념관, ‘광주마당’ 설립, 민주주의전당 유치 활동, 유네스코 창의도시와 미디어아트 사업 등을 조망한다.

이런 행보들이 겹겹으로 보기에겐 각기 다른 사업처럼 보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한 가지 믿음이 흐르고 있다. 그 한 가지 믿음은 “문화야말로 민주주의의 일상화를 이끄는 힘”이라는 소신이다.

이 시민문화에세이집은 대부분 드라마틱한 장면 대신, 수많은 만남과 협력, 때로는 좌절과 갈등이 24편으로 나뉘어 담백하게 기록되고 있다. “책임있는 자리를 삼가겠다”는 다짐, 함께한 동지와 문병란, 송기숙, 이흥길, 김동원 교수 등 스승에 대한 감사, 실패를 통해 배운 겸손 등을 과장하지 않고 담백하게 광주의 깊은 결을 담아내고 있다.

이 시민문화에세이집은 단지 한 인물의 자서전적 기록이 아니라 광주라는 도시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시민사회가 어떤 시행착오를 겪으며



성장해 왔는지, 그리고 문화와 민주주의가 어떻게 서로를 살려왔는지 보여주는 살아 있는 자료로 이해된다. 동시에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무엇을 이어가야 할지 묵묵히 묻고 있다.

표지와 본문에 담긴 예술 작품들은 ‘김상윤’이라는 인물 서사를 시각적으로 확장에 보여준다. 재독자가 정영창의 광주의 트라우마를 응시하는 시선, 5·18광주민중항쟁시 버스를 몰며 싸운 동생이자 동지인 김상집의 서사적 초상을 통해 그려낸 한 인간의 내면 등을 망라한 것들이 내용과 함께 우리를 더 깊은 성찰로 이끈다.

출판사 관계자는 “광주를 아는 분에게는 새로운 깊이를, 광주를 잘 모르는 분에게는 새로운 지

도 한 장을 건네주는 일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하심(下心)으로 세상을 배우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이 회고는 더없이 따뜻한 동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자인 김상윤씨는 전남대 학생으로 박정희 유신정권에 반대하다 제적당한 후 독서모임에서 활동하다가 당시 급서로 지정된 인문사회과학서를 학생과 시민들에게 보급하기 위해 1977년 계림동에 녹두서점을 열었다. ‘녹두서점의 오월’ 등을 펴낸 바 있다. 현재 윤상원기념사업회 교문을 맡고 있다. 부인은 전 오월 어머니집 이사장을 맡았던 정현애씨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광주교도소 출감할 당시 저자 모습. (1975.2.16)

‘모두가 즐기는 문화예술’...ACC 접근성 강화 ‘눈길’

연구모임 통해 개선 과제 발표
시설·서비스·콘텐츠 등 19건
사회적 약자 불편 해소 주력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김상욱)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F, 사장 김명규)이 장애인과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모두가 평등하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선 추진 과제’를 최근 발표했다.

이번 개선 과제는 ACC와 ACCF가 시설 보완을 넘어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만족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ACC는 지난해 개관 10주년을 맞아 접근성 개선 연구모임을 운영하며 시설, 서비스, 콘텐츠 등 3개 분야에서 총 19건의 핵심 개선 과제를 선정했다. 이어 본격적인 실행에 나서기 앞서 지난 7일 지역 장애인 전문가 7인을 초청해 자문 회의도 개최했다.

먼저 시설(물리적 접근성 확대) 분야에는 5가지 과제가 포함되며,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완하고 모두를 고려한 시설 및 디자인 개선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휴게 지원 공간 효율성 제고, 무장애 환경 개선을 위한 경사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 장애인과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모두가 평등하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선 추진 과제’를 최근 발표했다.

키오스크, 도움벨 등을 보완하고 설치할 예정이다.

서비스(서비스 접근성 제고) 분야에는 8가지 과제가 선정됐다. 전시·공연·교육 전반에 3D 촉각형 전시 자료 제작·제공, 음성해설, 수어 통역, 공연 시 자막 운영, 공연 전 비상 대피 안내 수어 자막 및 영상 안내 등 무장애 요소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장애인 응대 교육을 정례화한다.

또한 장애인 유형별 문화전당 투어감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충할 예정이며, 장애인 동행 서비스 운영, 만족도 조사, 전문가 의견 수

렴을 확대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콘텐츠(프로그램 접근성 확충) 분야에는 6가지 과제가 포함된다. 장애인 예술인의 창작 역량을 반영한 중장기 기획을 진행,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 및 전시 관람 행사 개최, 휴관일 초청 편안한 관람 행사 추진, 공연·전시 등 콘텐츠 기획 단계부터 접근성 관련 자문을 실시하고 반영한다.

이외에도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 교육, 문화 행사 확대, 모두가 관람 가능한 어린이 공연을 마련할 전망이다.

김상욱 전당장은 “장애인·비장애인 모두 문

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지역 장애인 단체는 물론 모두미술공간, 모두예술극장 등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물리적 시설 개선부터 콘텐츠 확대까지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접근성 연구모임을 이끈 남찬우 ACC 기획운영관은 “이번에 발표한 19건의 과제를 중장기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정기적인 의견 수렴 및 점검과 신규 과제 발굴을 통해 접근성 선도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자본주의 이후 ‘삶과 예술’...‘봄의 선언’전 연계 대담

17일 문화정보원 극장3...예술가 호 루이 안·비평가 서동진 만남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김상욱)이 오는 17일 오후 2시 문화정보원 극장3에서 ‘봄의 선언’ 전시 연계한 대담을 진행한다.

이번 대담은 동시대 아시아 담론을 연구하는 세계적인 예술가 호 루이 안(Ho Rui An·싱가포르)과 비평가 서동진의 만남으로 이뤄진다.

ACC 개관 10주년 기념 특별전 ‘봄의 선언’(2025.9~2026.2, 북림전시1관)은 자본주의 이후 세계를 사유하는 국제 협력 전시로, 예술

을 통해 경제, 생태, 기술, 정치가 얽힌 복합적 현실을 조망한다. ACC는 ‘봄의 선언’의 마지막 연계 행사인 이번 대담을 통해 전시의 문제의식을 관람객과 공유하고자 한다.

이날 열리는 대담에서는 현대사회에서 ‘경제’가 단순한 제도나 시스템을 넘어 신체, 감정, 삶의 방식, 그리고 예술적 상상력까지 어떻게 침투하고 조직해왔는지를 비판적으로 조망한다. 정치철학과 사회이론을 기반으로 자본주

의와 신체의 관계를 날카롭게 분석해온 서동진과 영상 및 설치 작업을 통해 동아시아의 경제·정치·미디어 환경을 탐구한 호 루이 안은 각자의 연구와 작업을 가로지르며 동시대 거버넌스의 작동 방식을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특히 ‘봄의 선언’ 전시 참여자가 각자의 작품을 통해 제시하는 문제의식, 자본주의 이후의 세계, 경제가 정치와 사회를 대체한 시대, 그리고 인간의 삶이 관리되고 통치되는 방식을 하나의 대화의 장으로 확장한다. 이어 산업화와 성장 논리가 신체뿐 아니라 환경을 어떻게 소모했는지를 돌아보며,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

경 문제가 아닌 동시대 자본주의의 핵심적 결과로 사유하는 시각을 제시한다. 또한 예술과 이론이 만드는 지평에서 기후위기 이후의 세계를 상상하기 위한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이를 통해 전시가 제안하는 ‘봄’이 위기의 끝이 아닌 전환과 제사유의 계절이라는 의미를 되새긴다.

김상욱 전당장은 “이번 대담은 경제·사회·기후위기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입체적으로 조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봄의 선언’ 전시의 핵심 이론인 자본제 담론을 관람객이 더욱 쉽고 유익하게 접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담 참가자는 ACC 누리집(www.acc.go.kr)에서 사전 신청 또는 현장 접수로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 정채경 기자 view2018@

문인들 희망찬 새해 염원 다뤄 계간 ‘문학춘추’ 겨울호 출간

계간 ‘문학춘추’(발행인 노남진)는 통권 132호인 겨울호를 최근 펴냈다. 이번 겨울호에는 세 특집과 시, 시조, 동시, 동화, 수필, 소설, 평론, 신인상 당선작 등 다채로운 내용이 실렸다. 특집1에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며’, 특집2에는 ‘시인의 집념은 기억과 일상의 삶에서 비롯된다’, 특집3에는 ‘문예로서의 수필’이 각각 수록됐다.



먼저 특집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며’에는 김대현(한국극작가협회 고문·창작마를 총장), 김만선(소설가·무등일보 취재부장), 김철교(문학박사·국제PEN 부이사장), 박두순(전 국제PEN 부이사장·한국동시문학회장), 임원식(광주예술회장), 전원범(전 광주문협 회장) 등 지역 문화와 문화예술을 이끌어온 인사들의 욕망 메시지를 통해 새해를 향한 희망과 다짐을 담았다.

이어 특집 ‘시인의 집념은 기억과 일상의 삶에서 비롯된다’에는 시인의 집념이 개인의 기억과 일상적 삶에서 출발함을 전제로 윤선도의 삶과 신앙, 오복 사상을 중심으로 인간이 끊임없이 추구해 온 복과 욕망의 구조를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등 인간의 집착이 정수·재물·관계·명예에 대한 갈망으로 드러나며, 이는 신앙과 윤리, 삶의 태도 속에서 형성되고 순환되고 있음을 밝히고자 했다.

또 ‘문예로서의 수필’은 이준배 주간의 기획 평론으로, 수필을 흔히 말하는 ‘붓 가는 대로 쓰는 글’이 아닌, 주제를 미화하는 창작 산문으로 규정하는 등 문체와 구성, 어조, 시적 표현을 통해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분열적 이론을 넘어 조화 속에서 진화하는 수필 문학의 방향을 제시한다.

시에는 김종 박준수 박형동 이태범 시인, 시조에는 강경화 백학근 서연정 송선영 이희란 시인, 동시에는 최정심·최인혜, 수필에는 김영관 박철한 황옥주, 소설에는 고가람씨, 평론에는 백수인 명예교수(조선대)의 평론 ‘한강 장편소설 ‘소년이 온다’의 소설문학적 특징’ 등 다양한 장르의 신작들이 풍성하게 실렸다.

아울러 제130회 문학춘추 신인작품상을 수상한 배은우·이광현(시 부문), 이동문학가 박경득·정윤남(동시 부문)씨의 작품이 수록됐다. 1992년 창간 이후 ‘문학춘추’는 어려운 여건 속 단 한 차례의 결호 없이 32년간 통권 130호를 넘기며, 지역 문학의 현장을 묵묵히 지켜온 소중한 문학지로 자리매김해 왔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